

2006 바둑리그 6월 MVP '흑기사' 김승준 9단 선정



대전 신성건설의 '흑기사' 김승준 9단이 KB국민은행 2006 한국바둑리그 6월의 MVP로 선정됐다.

바둑팬 658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1일 한국바둑리그 공식 홈페이지(www.2006badukleague.com)에서 진행된 MVP투표에서 김승준 9단이 37%의 득표율로 6월 월간 MVP 트로피를 차지했다. 경북 월드메르디앙의 유창혁 9단은 24%를 얻어 2위에 올랐다.

김승준 9단은 MVP후보에 올랐던 유창혁 9단, 이세돌 9단, 최철한 9단 등 경쟁한 기사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누렸다.

김승준 9단은 6월에 참가한 리그에서 김주호 7단(파르랜드), 원성진 7단(한게임) 등 상위 랭커들을 잇따라 제압, 팀을 중위권으로 끌어올리는 활약을 펼쳤다.

2006한국바둑리그는 팀 공헌도가 높거나 명승부를 펼친 기사를 바둑팬들의 투표를 거쳐 매월 MVP로 선정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정상 급부상... 사상 초유 '시간패' 해프닝도

■바둑 2006년 상반기 결산

올 상반기를 마감한 한국 바둑의 국제대회 성적표는 초라했다.

그러나 후지쓰배 우승을 일궈낸 박정상 9단의 활약은 스타 가운데 허덕이던 한국 바둑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한국 바둑은 지난 6월까지 열린 삼성화재배, LG배, 정관장배(여류기전), 농심배, 강원랜드배, 후지쓰배 등 6개 메이저 대회에서 단 1개의 타이틀을 따내는 '빈작'에 허덕였다.

세계 최강 한국을 위협하던 중국은 상반기 성적적으로는 한국을 넘어섰다. 중국은 삼성화재배, LG배, 강원랜드배, 정관장배 등 무려 4개 국제 기전을 쓸어들였다.

타이를 보유 갯수만 따진다면 후지쓰배만을 건진 한국은 일본과 나란히 바둑권이다. 한국이 지난해 6개 메이저대회에서 4개 타이틀을 독식했던 것에 비하면 '천양지차'다.

국내 기전에서선 '사대천왕' 가운데 이창호의 독주가 눈부셨으며, 최철한, 이세돌, 박영훈 9단 등은 체면을 유지하는 데 그쳤다.

'神算'이창호는 제49기 국수전에서 속적 최철한 9단을 제압하고 타이틀을 따낸 뒤 제 1기 원익배 10단전, 전자랜드배 왕중왕 전 등 3개 대회를 독식했다. 이 9단은 전자랜드배에서 2연패를 달성, 독주 체미를 갖췄다.

최철한 9단으로서는 아쉬움이 많은 상반기였다. 국수타이를 이창호 9단에게 내준 뒤 맥심 커피배까지 2차례 대회에서 준우승에 그쳐 입맛이 쓰다. 이세돌과 박영훈은 각각 제7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제17기 현대자동차배 기성전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이세돌 9단은 올 1월1일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국내 모든 공식기전을 종합, 14연승을 달리는 등 강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기도 했다.



<박정상 9단>



<이창호 9단>

국내 '사대천왕' 부진, 이창호 9단만 3관왕 체면유지 국외 중 4개 메이저 우승...韓·日 각 타이틀 1개 그쳐

한국 바둑은 지난 6월까지 열린 삼성화재배, LG배, 정관장배(여류기전), 농심배, 강원랜드배, 후지쓰배 등 6개 메이저 대회에서 단 1개의 타이틀을 따내는 '빈작'에 허덕였다.

세계 최강 한국을 위협하던 중국은 상반기 성적적으로는 한국을 넘어섰다. 중국은 삼성화재배, LG배, 강원랜드배, 정관장배 등 무려 4개 국제 기전을 쓸어들였다.

타이를 보유 갯수만 따진다면 후지쓰배만을 건진 한국은 일본과 나란히 바둑권이다. 한국이 지난해 6개 메이저대회에서 4개 타이틀을 독식했던 것에 비하면 '천양지차'다.

국내 기전에서선 '사대천왕' 가운데 이창호의 독주가 눈부셨으며, 최철한, 이세돌, 박영훈 9단 등은 체면을 유지하는 데 그쳤다.

'神算'이창호는 제49기 국수전에서 속적 최철한 9단을 제압하고 타이틀을 따낸 뒤 제 1기 원익배 10단전, 전자랜드배 왕중왕 전 등 3개 대회를 독식했다. 이 9단은 전자랜드배에서 2연패를 달성, 독주 체미를 갖췄다.

최철한 9단으로서는 아쉬움이 많은 상반기였다. 국수타이를 이창호 9단에게 내준 뒤 맥심 커피배까지 2차례 대회에서 준우승에 그쳐 입맛이 쓰다. 이세돌과 박영훈은 각각 제7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제17기 현대자동차배 기성전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이세돌 9단은 올 1월1일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국내 모든 공식기전을 종합, 14연승을 달리는 등 강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기도 했다.

한편, 올 상반기에는 '시간패'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승부가 갈린 해프닝도 있었다. 지난 4월4일 열린 제7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결승 최종국에서 이세돌 9단이 최철한 9단을 맞아 69수만에 흑 시간강을 거두며 2연패를 달성한 것.

이날 최 9단은 40초 초읽기가 1회만 주어지는 맥심커피배 규정을 깜빡해 어이없는 시간패를 당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조한승 9단, 8강행 막차

천원전, 이재웅 4단 놀러

박카스배 천원전 8강 진출기사가 확정됐다. 조한승 9단이 지난 11일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열린 제11기 박카스배 천원전 16강에서 이재웅 4단을 178수 만에 백 불계승으로 따돌리고 8강행 막차를 탔다.

이로써 박카스배 천원전 8강전은 조한승 9단-목진석 9단, 이희성 6단-허영호 5단, 유재호 2단-이세돌 9단, 서건우 3단-진봉규 3단 간 대결로 압축됐다.

이 대회 제한시간은 각자 3시간, 초읽기 60초 5회가 주어지며 우승상금 2천만원(준우승 1천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정수현 9단 '박사 기사' 됐다

고려대서 '바둑학습' 교육학 박사 문용직 5단 이어 국내 두번째 학위

프로 기사 정수현 9단(사진)이 국내 두번째 '박사 프로기사'가 됐다.

14일 한국기원에 따르면 정수현 9단이 '대학생의 개념도 활용 바둑학습 및 바둑에 대한 사전지식이 지식 습득과 문제해결에 미치는 효과'란 논문으로 고려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정 9단은 서울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문용직 5단에 이어 프로기사는 두번째 박사학위 소지자가 됐다. 이 논문은 개념도(concept mapping)를 통한 바둑 수업 방식의 효율성에 대한 검증과 함께 다양한

제언을 담고 있다.

정 9단은 지난 2002년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곧바로 박사학위 도전에 나서 4년여 만에 꿈을 이뤘다.

지난 97년부터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는 그는 수업과 대국, 연구를 병행하는 강행군 속에 이 같은 성과를 이뤄내 바둑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안식년이던 지난해 1년 동안 교과 논문 준비에만 매달렸다고 한다.

정 9단은 "바둑학을 학문적으로 정립, 그 콘텐츠를 세계에 전파하고 싶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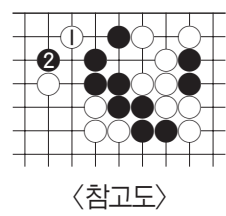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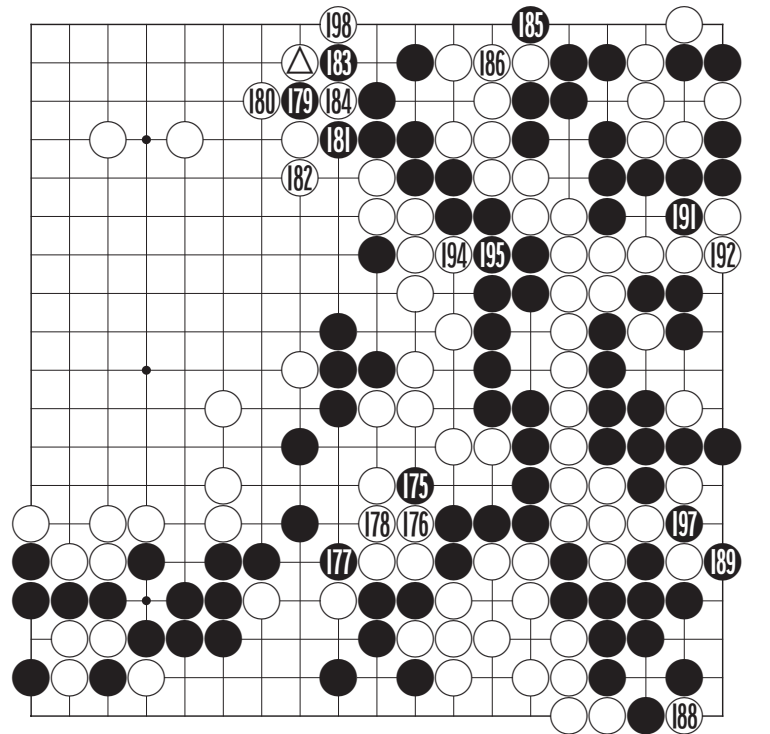
제15회 光日盃 光日盃

'인간힘을 다한 때싸움'

2회전 제10보(175~198)

白 기우준 5단 <광주시교육청>

黑 허우석 5단 <광주시청>



<참고도>

백 (정보 최중수)로는 '참고도'의 백 1로 급소가 다가오고 싶은

한 때싸움.176으로 한 수를 줄인 것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팻갠도 두개가 손해다.

그런 다음 179에 찢려 183으로 패싸움을 걸어 왔는데 이 패싸움은 흑의 꽃놀이라는 것이 허 5단의 생각이다.

과연 백은 팻갠이 부족해 188과 같은 손해패를 쓸 수밖에 없고 흑은 그 와중에 우변의 백 한점을 197로 들어 내는 권리를 얻어 냈다.이것으로 백의 수가 두수가 줄어 패를 지더라도 흑에게는 타격이 없어졌다.기우준 5단은 인간힘을 다해 198로 찢해보는데... 187,193~179, 190,196~184의 곳 따남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중심 SK telecom KT&G 전남본부

Movie advertisement for 'Happy Time' and '영화안니'.

Advertisement for '메가박스' (MegaBox) with movie listings.

Advertisement for '엔티시네마' (Enti Cinema) with movie listings.

Advertisement for '컬럼버스시네마' (Columbus Cinema) with movie listings.

Advertisement for '씨너스 광주 8개관' (Cinema 8 branches) with phone numbers.

Advertisement for '8월초 오픈 T.383-3445~7' (Opening in early August).

Advertisement for '상가임대문의' (Commercial rental inquiries) with phone numbers.

Large advertisement for '광상무나이트' (Gwang Sang Mu Night) featuring Tae Jin Ah and Heo Eun Yi.

Advertisement for '개업/성업' (Opening/Business) listing various real estate and service agencies.